

##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 검토 및 대안 :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오경선\*·하지수\*\*·이수희\*\*\*1)

경기기흥중학교\*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Internal Consistency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s : Focused on the Clothing & Textiles Area

Oh, Kyungseon\*·Ha, Jisoo\*\*·Lee, Soo-Hee\*\*\*1)

*Home Economical Teacher, Gyeonggi Kihung Middle School\**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justification of the subject through review and alternatives example o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s focused to the clothing & textiles area based on the beliefs and values inherent i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perspective of the assumptions about the five components of the curriculum - family, society, objective, subject matter, method in education - from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to in 2015, and suggests an example of subject matter based on the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lothing & textiles area of the revised curriculum from in 2007 to in 2015, family, society, objective, subject matter and method in education, excluding subject matter, were taken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In order for 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s to be internally consistent, assumptions about the subject matter should be transformed to deal with the clothing & textiles as a family work. And needed to complement assumptions about family, objective and method in education. Second, based on the discussion, suggested an alternative example to the clothing & textiles area based o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s.

**Key words:**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Home Economics curriculum component),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전통적 관점(Traditional perspective), 비판과학 관점(Critical science perspective), 의생활 영역(Clothing and textiles area)

---

1) 교신저자: Lee, Soo-Hee, San 56-1 Shillim-dong, Gwanak-gu, Seoul 08826, Republic of Korea  
Tel: 02-880-9052, Fax: 02-880-0710, E-mail: kywonk@unitel.co.kr

2)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교과는 무엇인가, 가정과교육에서의 학습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가, 가정과교육에서 적절한 지식의 종류와 탐구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정과교사들은 신념을 갖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Dohner, 1986; Kister, 1999).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이는 교사들이 교과와 철학에 대해 숙고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보다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일에 주로 집중해왔고(Kim, 2013), 외부 전문가들은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지향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과와 신념과 가치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Kliebard 1970; Hur, 1995; Park, 2005).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시 교과와 철학을 위해 교육과정 구성요소인 교육의 목표와 학습자, 사회, 지식 등에 관한 신념과 가치를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은 타 교과와 구별되는 가정교과만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를 통해 교과내용이 결정될 뿐 아니라 교과와의 정당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Brown, 1978, Dohner, 1986; Kister, 1999; Montgomery & Davis, 2004). 이 때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은 하나로 묶여 기계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가치에 따라 내적 일관성을 갖고 상호작용하여야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Dewey, 1902).

가정과교육과정의 구성요소에 관한 신념과 가치가 내적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가정과교육과정 이론이 교육과정 요소의 선택과 조직을 위한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정과교육과정 이론은 크게 전통적(경험과학, 기술과학)<sup>1)</sup>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Brown, 1978; Brown & Paolucci, 1979; Montgomery 2006, 2008). 경험과학 관점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정과 사회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

았고 이는 산업화 시대에 생활을 개선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가치판단문제들에 대한 해결 요구가 높아지면서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Brown, 1978). 비판과학 관점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실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가치에 기반하여 비판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생산·개발되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가치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였다(Brown, 1978, Montgomery, 2008 ; Kokoszka, 2015).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2007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부터 가정생활 분야(이하 가정과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여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Yoo & Lee, 2014)

그러나 비판과학 관점을 가정과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체계와 구성이 기존의 전통적 관점의 형식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Yoo, 2006; Lee, 2007). 교육내용은 교육과정 관점을 반영하는 핵심 영역이며 현장 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목표 성취가 어렵다(Lee, 2010).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내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천적 문제 중심교육 내용(Oh, Lee, & Lee, 2010), 교과서 집필 방식 개선책 제안을 통한 가정교과 내용(Lee, 2012),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내용 실천(Lee & Yoo, 2008; Yoo & Lee, 2009) 등 여러 연구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계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였고(Yoo & Lee, 2014), 2009 개정과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이라는 특성상 짧은 시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당장의 교과쟁점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Ju & Yoo, 2016).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개발진이나 참여자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들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대적 요구와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는 가정과교육과정의 신념과

1) 허숙(1995)은 교육과정 전통주의자의 관점으로 타이러의 논리(Tyler Rationale), 경험과학, 기술과학, 행동주의 심리학 등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전통적 관점으로 명명하였다.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내적 일관성을 지닌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선택하여 가정교과에 어떤 내용과 학습 경험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과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개인과 가족에게 항구적으로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들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치에 기반 한 문제로서 반성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해결되며 여기에는 기술적 행동 뿐 아니라 의미를 공유하는 의사소통과 왜곡된 사상이나 신념을 검토하는 해방적 행동들이 포함된다(Brown, 1978; Montgomery, 2008).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은 개인의 자아(自我)를 성숙시키고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가족,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청소년은 타인에게 자아(自我)를 표현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로 가정교과의 의식주(衣食住)영역 중 의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Cho, 2003; Cheon & Ha, 2007; Eo & Oh, 2009). 의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사회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들로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의생활 교육내용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Pak & Lee, 2003; Bae, 2008; Park, 2008). 그러므로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반성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의생활 교육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나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가정과교사들이 다른 학문들과 구별되는 가정교과만의 고유성을 규정할 수 있는 신념과 가치를 정립할 수 있고, 학습자가 직면한 실천적이고 지속되는 의생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생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가족이 개인의 자아(自我) 성숙과 자주적 역량

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아가 가정교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과교육의 사명을 실현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과교육과정 5가지 구성요소 -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 의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2) 1)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여러 교육과정 이론이 형성되고 각기 다른 신념체계를 취한다(Park, 2001). 교육과정을 이루는 교육목표, 학습경험, 평가 등은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 교육과정 이론은 교육과정 요소의 선택과 조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때 교육과정 이론은 단순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제적인 선택을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들이 된다

(Brown, 1978). 따라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지니는 신념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인 학습자, 사회, 지식 등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은 단순히 하나로 묶여 기계처럼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나아가 교육과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제공하여 대안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Dewey, 1902).

Brown(1978)은 교육과정 구성요소가 내적 일관성을 지닌 대표적인 교육과정 관점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관점 A, B, C 에 따라 학습자, 사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이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상호작용하도록 개념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점 A를 취할 경우 교육과정 진술은 다음과 같게 된다.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며, 현존하는 문화의 규범과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 교과내용은 학문의 분야 내에서 학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로 조직되고 가치중립적인 내용이며 생활 경험과 분리된다. 또한 교사의 직접적인 교수를 받고 이를 수용하는 학습방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야 한다.

반면, 관점 B를 취할 경우에 교육과정은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에 맞게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및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교과내용 뿐 아니라 복잡한 사고과정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생활 경험과 학교 경험을 상호 연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은 교육과정 설계에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관점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는 교육목표와 교과내용에 방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목표를 성취하고 교과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에 관한 신념과 가치를 검토하여 요소 간의 내적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가정과교육과정 이론

가정과교육과정의 이론으로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이 존재한다(Brown, 1978; Brown & Paolucci, 1979;

Table 1. Grouping of Conceptions for Synoptic View of Curriculum Rationales

	Perspective A	Perspective B	Perspective C
<b>Learner</b>	Ideally, the learner is rationally in command of certain facts and skills necessary to meet expectations of the society.	Ideally, the learner is an independently critical and creative thinker, morally responsible as a member of society, and an organism in continuity with nature	Ideally, the learner is an “unfolding flower” developing his own uniquely individual qualities.
<b>Society</b>	Society and social conditions should be accepted and protected as they are.	Social conditions and norms are not necessarily sound or unsound for human existence	All societies and all cultures seek to socialize or enculturate their members thereby interfering with the individuation of the person.
<b>Subject matter &amp; Knowledge</b>	Subject matter consists of the accretion of specific informations.	Knowledge consists of both substance and processes of knowing, i. e., both what is known and how it is known	Each person is his own judge of what is true, i.e., all knowledge is subjective.
<b>Aim of education</b>	Mastery of subject matter and specific skills within the subject matter.	Ability to use what is learned in autonomous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nd action in a democratic society	Finding the meaning of one’s own existence and the development of one’s own potentials.
<b>Method in Education</b>	Directive teaching and receptive learning with emphasis on subject matter together with teacher determination of what is to be learned and how it is to be learned	Critical analysis, problem-solving, and democratic social processes with the degree of direction by the teacher decreasing with the developmental maturing of the student.	Laissez-faire, non-directed learning environment for examining own feelings, thoughts and for self-expression

Note. Excerpted from Brown(1978, pp 8-11)

Montgomery 2006, 2008). 초기 학교교육에서 가정교육은 전통적 관점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전통적 관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타일러의 논리(Tyler Rationale)’에 의한 목표 진술, 경험선정, 경험조직, 학습평가 단계의 교육과정 개발이었다.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 탐구는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 입장이어야 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가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체계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였다(Brown, 1978; Dohner, 1986). 그 후 경험과학에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축적된 지식을 교육과정에 적용시켰다. 즉, 교육과정을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파악하여, 양측 사이의 관계를 밝혀 보다 효율적인 생산 원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Hur, 1995).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관점은 과학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기술 발달과 생활 개선에는 적합하였으나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관심과 자기반성적 행동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가치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과정이 대두되었다(Brown, 1978).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은 사회정의와 인간 본연의 가치

를 강조하는 가치 지향적 교육과정으로 Brown과 Paolucci (1979)의 “Home Economics : A Definition” 에서 정립되었다. Brown(1978)은 가정교육은 문제 지향성 학문으로, 인간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지식의 기반이 형성되고, ‘문제’는 깊이 있는 사고와 탐구를 일으키는 질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가족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로서, 정치 도덕적, 문화적으로 정당하고 바람직한가를 찾아 규범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의사소통적 행동을 의미한다(Yoo et al., 2004). Habermas(1971)의 인식론에 따라, 행동은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을 뜻하며, 세 가지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개인과 가족의 세 가지 행동체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실천적 추론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고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Brown & Paolucci, 1979). 실천적 문제의 바람직한 상태에 대해 가치를 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이 개인적·사회적 상황과 역사적·문화적 상황에 맞는지 검토한 후, 가치를 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이 목적에 합당하고 옳은지 혹은 실행 후의 결과가 목적, 맥락에 모순되지 않은지를 파급효과로 판단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과능력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들을 해결할

Table 2. Differences in Course Design

components	Traditional Approach	Critical Science Approach
Subject matter	Specific topics	Recurring concerns Broad concepts Work of the family
Objectives	Specific and narrow Behavioral	Learner outcomes Reflect family systems of action
Basic Learning	Factual Statements	Conceptual Statements
Teacher's Role	Dispenser of information	Facilitator; Co-investigator
Student's Role	Passive Listener	Active participant Investigator of concepts
Questions	Factual	Includes process questions Practical reasoning Technical, Conceptual & Critical
Intellectual Skills	Taxonomy with levels of thinking	Value and moral reasoning Practical reasoning Critical thinking Perspective taking

Note. Some excerpts Hauxwell & Schmit(1999, pp96-97)

수 있는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의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다(Brown, 1978).

가정교육과정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 학습자와 사회, 지식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개념들은 특정 관점에서의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내적 일관성을 가져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즉, 학습자에 대한 개념은 사회와 지식, 교과내용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들의 상호관계로부터 교육의 목표가 나타난다.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으로 Brown(1978)은 <Table 1>의 관점 A, B, C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가정교사 교수 연감(Johnson & Fedje, 1999)에서 Hauxwell과 Schmit(1999)는 가정교육과정의 구성요소가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Table 2>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Montgomery(2006)는 바느질 기술에 초점을 둔 의생활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기술과학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점에 대해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그 후에 가정교육과정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경험과학<sup>2)</sup>과 비판과학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Montgomery, 2008).

이상에서 제시된 가정교육과정의 5가지 구성요소 -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 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전통적 관점(관점A, 기술과학 관점, 경험과학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관점B)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비교·정리하였다.

1) 가족에 대한 가정(assumption)

전통적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가족은 음식과 의복 등을 만들어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자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 행동이나 ‘How to’ 행동에 관여한다고 가정(assumption)한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습득한다. 이는 인간은 수동적이어서 타인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인지적 과정과 정의적 과정이 분리된 기계와 같다는 전제를 따르기 때문이다(Brown, 1978). 따라서 맥락이나 책임, 가치 등이 배제된 기술적인 방법으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의 기능(function)을 수행한다고 간주한다.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가족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인식되며 단순한 기술적 행동을 습득하는 것 뿐 아니라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창조하는 일(Works)을 한다. 이는 인간은 능동적이어서 주체적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행동을 할 수 있어 가족의 일에 책임을 갖고 행동(action)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Brown, 1978). 이를 위해 가족의 행동체계인 세탁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행동, 상호 이해와 같은 의사소통적인 행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비판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Table 3. Curriculum models which emphasizes sewing skills

	Technical Science	Critical Science
<b>View of the famil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ducers of clothing</li> <li>Family carries out sewing as an isolated action</li> <li>Emphasis on technical or “how to” ac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sumers of clothing</li> <li>Family carries out responsibilities &amp; actions in integrative ways</li> <li>Emphasis on multiple actions including technical, communicative &amp; critical</li> </ul>
<b>Focus of Learnin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wing skills</li> <li>Product development</li> <li>Hands-on learn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nduring concepts</li> <li>Problem solving</li> <li>Active learning</li> </ul>
<b>Role of the Teacher and Studen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cher as sewing expert</li> <li>Students receive knowledge transmitted from the teach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cher as facilitator</li> <li>Teacher &amp; students as co-investigators</li> </ul>

Note. Montgomery(2006).

2) Montgomery는 전통적 관점으로 기술과학(Technical Science)(2006)과 경험과학(Empirical-Rational Science)(2008)을 모두 사용하였음.

2) 사회에 대한 가정(assumption)

전통적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사회는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며, 보호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이 순응해야 할 환경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강조하여 현존하는 문화적 관습이 삶의 가치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가정(assumption)한다.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사회는 반드시 건설적이지 않아서 개인과 가족에 의해서 창조되고 개선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과 가족은 사회체제나 이념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환경을 지배하고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와 문화로부터 나왔으며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는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계몽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assumption)한다(Brown, 1978).

3)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

전통적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목표는 ‘How to’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의 문제를 관리 가능한 구성 요소로 객관화하고 축소하여, 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추구한다(Jane Plihal et al., 1999). 이 때, 기술적 해결책에 집중하여 가치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즉, 가정교과를 소주제 중심으로 나누고 이와 관련된 능력(competence)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습자가 단편적으로 가족원 또는 특정한 직업인으로서의 미래 역할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가족이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을 갖추어 교양 있고,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가?, 왜? 그리고 무엇이어야만 하는가?(what ought to be?)와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평등, 공유, 존엄성, 안전, 자유, 돌봄 등과 같은 사회 정의와 가치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Jane Plihal et al., 1999). 이 과정에 가족의 행동체계인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 그리고 해방적 행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가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중적인 맥

락에서 현재와 미래 역할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4)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

전통적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은 사전에 결정되고 합의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는 지식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는 분리된다고 보고 앎은 아는 것과 방법을 아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는 것은 흥미나 태도와 같은 감정이나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념보다는 소주제의 사실적 지식들 중심으로 구성되며, ‘how to’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들을 다루며 가사일과 같은 가족의 기능(function)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의생활에서는 의복의 기능, 선택, 관리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가장 효과적인 의복행동을 교과내용으로 제시한다(Montgomery, 2006).

비판과학 관점 가정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은 항구적이거나 현재 대두되는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 관련 관심사나 문제, 이슈에 근거하여 선택된다. 예를 들어 ‘의복과 가족의 책임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등과 같은 항구적인 문제들을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 가치목표, 대안, 행동 등의 추론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지식, 기술, 가치들이 교과내용에 포함된다(Montgomery, 2008). 이는 지식은 앎의 실체로서 교과내용과 학습방법으로 구성되며 교과내용과 생활 경험은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은 인간에 의해 재구성되고 실제 생활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식과 감정, 가치는 상호 의존적이며 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는 앎의 연장선이라고 가정(assumption)하였다(Brown, 1978). 따라서 교과내용은 소주제가 아닌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광의의 개념은 항구적인 문제에 내재되어 있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행동체계를 사용하게 된다. 비판과학 관점에서는 가정교과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가족의 일(Works)’을 제시하고 있다(Hauxwell & Schmidt, 1999). 가족의 일은 가족의 기능 뿐 아니라 가족원의 이성적 추론과 윤리적 접근, 상호의존성을 결합한 것으로, 가족원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의 목표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action)을 의미한다.

### 5)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

전통적 관점의 가정교육과정에서 교수방법은 교과 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사를 지식 전문가로, 학생은 교사의 전문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사 중심의 직접적인 교수와 학생의 수동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생의 성과물이나 완성에 초점을 맞추며 정답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습 학습이 주를 이룬다. 질문들은 주로 사실 지식 위주로 구성된다.

비판과학 관점 가정교육과정에서 교수방법은 학생들이 신념과 행동의 근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에 교수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민주적 사회 과정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촉진자이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의 탐구자, 협력자로 인식되며,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개념을 검토하는 조사자로 간주한다. 주로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질문, 실천적 추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둔다(Montgomery, 2008).

## 3. 의생활 교육의 선행 연구 고찰

의생활 교육은 초기 학교교육에서 침공, 재봉, 수예가 포함되며 가정교육을 대표하였다. 가사 일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어 생활의 유용한 지식을 필요로 했던 기술과학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며 여성교육의 핵심을 이루었다(Kang & Oh, 2006; Park, 2007).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이양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개별적이며 복잡한,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은 타인에게 자아(自我)를 표현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시기로, 의복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 결과 의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도는 높았으

나(Cho, 2003; Eo & Oh, 2009), 단편적 기능 위주의 의생활 내용과 수업 대한 필요도나 만족도가 낮았고(Pak & Lee, 2003; Kang & Oh, 2006),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Bae, 2008; Park, 2008)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보는 시선도 생겼다(Hankyung, 2014).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의생활 문제를 가치에 근거하여 반성적 판단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해결하는 비판과학 관점의 의생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의생활 수업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실천적 추론을 통한 로하스 의식 함양(Kim & Lee, 2010), 전통 의생활 문화 인식 고취(Ban et al., 2011), 실천적 문제 해결 모형 적용과 효과(Sung, 2001; Cho & Lee, 2004) 등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비판과학 관점을 토대로 의생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체계를 제시하여(Yoo & Yoo, 2005) 의생활 교육의 목표, 내용체계,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 행동체계로의 질문, 각 단원의 내용기준 및 요소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다음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되지 못하고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연구자와 교육과정 개발자,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들 사이에 긴밀한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자와 현장의 교사들이 가정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정립하여 이를 기초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교육과정 구성 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과정 구성요소

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결과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한다.

## 2. 분석 도구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가정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검토할 분석도구로는 Brown(1978)이 제시한 관점 A, B에서 다른 내

용, Johnson과 Fedje(1999)의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 Toward a Critical Science Approach’와 Montgomery(2006)에서 기술과학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의 특성의 내용, Montgomery(2008)가 경험과학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 5가지 -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 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관점 A(Brown, 1978), 경험과학 관점(Montgomery, 2008)과 기술과학 관점(Johnson & Fedje, 1999; Montgomery, 2006)은 전통적 관점으로 동일하였고, 관점 B는 비판과학 관점으로 동일하여 교육과정 구성요소 분석틀을 <Table 4>와 같이 마련하였다.

Table 4. Curriculum component analysis framework

Components	Traditional approach	Critical Science Approach
<b>Famil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ind the most efficient means of developing technical skills to solve individual and family problem.</li> <li>Follow the function of family task</li> <li>Emphasis on technical or “how t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ke action intellectually and ethically based on the social justice values to solve individual and family problem.</li> <li>Create conditions in family and society</li> <li>Emphasis on multiple actions: Family technical, interpretive, reflective.</li> </ul>
<b>Societ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future of society can be controlled and predicted.</li> <li>Society and social conditions should be accepted and protected as they a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standards and conditions of society are created by its human members and can.</li> <li>Individual draw from the society and culture are influenced by them.</li> <li>The direction of society can be controlled by the rational public.</li> </ul>
<b>Objectiv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petence in subject matter</li> <li>Specific and narrow Behavior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mpower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to solve practical problem</li> <li>Learner outcomes, Reflect family systems of action</li> </ul>
<b>Subject Matte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lected and organized by pre determined subject areas</li> <li>Specific topics (Facts, how-to skills narrow topics)</li> <li>Function of the family</li> <li>Subject matter and skil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lected based on perennial and evolving family, career, and community issues</li> <li>Broad concepts</li> <li>Work of the family (Function + reasoned, ethical approaches, interdependence )</li> <li>Subject matter and intellectual and social skills</li> </ul>
<b>Method in educa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cher : Dispenser of information Student : Passive Listener</li> <li>Teacher directed</li> <li>Make product or complete goal</li> <li>Factual questions, Decision making</li> <li>Hands-on learn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cher : Facilitator, Co-investigator Student : Active participant Investigator of concepts</li> <li>Student centered, Cooperative groups</li> <li>Apply processes</li> <li>Process questions, Practical reasoning, Technical, Conceptual &amp; Critical questions,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li> <li>Active learning</li> </ul>

Note1. Brown(1978)

Note2. Johnson & Fedje(1999)

Note3. Montgomery(2006, 2008)

### 3. 분석영역 및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가정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영역으로는 가정교육과정에서 의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 성취기준,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뿐 아니라 가정교육과정 전체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이는 의생활 영역은 가정교육의 일부로 가정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과교육과정을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 중 가족과 사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가정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분석하였고 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가정교육목표와 의생활 영역의 목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과 내용별 성취기준, 학습요소를 분석하였다.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의생활 영역과 교과전체에 해당되는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였다. 다만, 2007 개정 가정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의생활 영역의 목표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는 <Table 5>와 같이 교육과정에 서술된 내용을 핵심 단어와 한 문장 단위의 의미 위주로 분석하였다. 문맥의 흐름 상 앞 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문장을 함께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밑줄을 쳤으며, 전통적 관점의 서술일 경우 이탤릭체를 추가 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해당 관점에 ‘○’ 표시한 후 음영처리 하였다. 두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분류에서 두 관점에 ‘○’을 모두 표시하였다.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은 두 관점에 모두 ‘-’ 표시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우선 분석한 내용을 의류학과 교수 1인과 교과교육전공 강사 1인, 10년 이상 경력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가정교사 1인, 5년 이상의 가정교사 1인에게 평가받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의생활 영역의 교육과정 구성요소 가정(assumption)에 대한 관점 검토

#### 1) 가족에 대한 가정(assumption)

<Table 4> 분석틀에 기초해, 2007 개정, 2009 개정 그리고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족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교육과정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 모두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였다. 가족은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지식과 기술, 가치 판단력을 사용

Table 5. Analysis Example

시기	교육과정 및 해설서 서술 내용	분류	
		전통적	비판적
2009개정	(의생활 영역)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시간 및 스트레스, 소비생활과 관련한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며,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p9-9-11).	-	-
2015개정	<u>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u>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p18:표5-6).(해설-의복 디자인의 요소, 자아존중감이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신체보호 및 자기표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p19:6-8)	○	○
	<u>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u>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u>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u> 한다(p18:표7-8).	○	

(밑줄 친 부분은 연구자, 이탤릭체는 전통적 관점)

Table 6. Assumptions of family

	가정교육과정 서술 내용	분류	
		전통적	비판적
2007개정	실과(기술·가정)는 학습자의 경험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증시하며, 급변하는 가정생활과 산업 기술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 교과이다(p1:5-7).		○
	7~10학년 기술·가정의 가정 분야는 학습자 자신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접하는 생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p.2:10-11).		○
	즉, 가정생활과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의사 결정 능력 등과 같은 사고 활동을 통해 지식, 기능과 가치 판단력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p.2:11-13).		○
	이를 위해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르게 하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p2:13-16).		○
2009개정	이를 기반으로 기술·가정과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p4:19-21).		○
	따라서 실과(기술·가정)는 노작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 설계를 포괄하는 생애를 설계하는 진로 개발 능력, 실천적 자기 관리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르는 핵심 교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p4:21-25).		○
	중학교 1~3학년 군에 해당하는 기술·가정과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근거한 실천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과이다(p5:14-16).		○
	‘가정생활’ 영역의 핵심 역량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습자가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5:27-29).		○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p3:11-13).		○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p3:14-17).		○
	합리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유지시키고 의식주 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p3:22-24).		○
	이러한 실천적 경험 속에서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교과 역량을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 안전하고 건강한 삶,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pp3:24-4:1)		○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p4:2-4)		○
	‘생활자립능력’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수행할 수 있으며, 주도적인 관점에서 자기 관리 및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p4:4-6).		○

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assumption)하였다. 이를 위해 실천적 문제해결력과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2007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학습자 자신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접하는 생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p.2:10-11)”이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가족을 항구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보고 있었다. 또한 “즉, 가정생활과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중략) 지식, 기능과 가치 판단력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p.2:11-13).”라고 서술한 부분은 가족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과 기능 뿐 아니라 가치판단을 통해 윤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assumption)하였다.

2009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에서는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p4:19-21).”라고 서술한 부분은 가족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행동을 강조하였고, “‘가정생활’ 영역의 핵심 역량은 …(중략)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5:27-29).”라고 서술한 부분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족이 기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었다.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p3:11-13).”와 “…(중략)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p3:22-24).”라는 내용은 가족을 직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문화와 환경을 창조시킬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있었다. 또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교과 역량을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pp3:24-4:1)”라고 서술하며 비판적 추론 능력과 가치 판단 능력, 주도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통적 관점으로 개발된 7차 가정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가정은 …(중략)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준다 (p1:23-25).

기술·가정은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는 21세기를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교과이다(p1:26-30)

위 내용을 보면 가족을 교과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수동

적 위치로 가정(assumption)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족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창조시킬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실천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가정(assumption)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가족의 행동체계(action system)인 기술적인 행동과 의사소통적인 행동, 비판적 행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가족의 행동체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에 대한 가정(assumption)

<Table 4> 분석들에 기초해,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사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교육과정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 모두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사회는 항상 건설적인 것은 아니므로 개인과 가족이 이를 개선하며 창조할 수 있고 개인과 가족 또한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2007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복지 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2:25-26).” 라고 서술한 부분은 사회와 환경은 개인과 가족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는 비판과학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2009 개정 가정교육과정의 경우 “최근 가정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중요 하게 여겨지고 있다(p5:20-21).”라고 서술한 부분에서는 가정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p3:15-17).”라고 서술한 부분은 가족과 사회,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이었으며 “…의식주 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

Table 7. Assumptions of society

	가정과교육과정 서술 내용	분류	
		전통적	비판적
2007 개정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복지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p2:25-26).		○
2009 개정	최근 가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p5:20-21).		○
2015 개정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p3:14-17).		○
	합리적인 자원 관리와 소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유지시키고 의식주 생활을 기반으로 한 가정 생활 문화를 창조·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p3:21-23).		○

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p3:22-23).”라고 서술한 부분은 사회는 창조·개선되어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전통적 관점으로 개발된 7차 가정과교육과정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가정의 지도 내용은 기술·산업과 가정 내용을 일상 생활과 학생의 요구, 교육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p1:31-33).

위 내용에서 사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사회 규범과 문화는 유지되어야 하며 인간은 이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비판과학 관점에서의 사회에 대한 관점과 대조되었다.

이와 같이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사회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건설적이지 못한 부분은 개인과 가족에 의해 개선, 계몽되어 발전하고 창조될 수 있다고 가정(assumption)하였다.

3)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

<Table 4> 분석틀에 기초해,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교육과정의 교과목표와 단원목표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2007 개정

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 모두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판단을 통해 행동할 수 있고 자주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기술적, 의사소통적, 비판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의생활 영역 목표에서는 관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도 일부 있었다. 전통적 관점의 특징이나 비판과학 관점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중략)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2:29-31).”라고 서술한 부분과 “…(중략)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p3:1-3).”라고 서술한 부분은 개인과 가족 뿐 아니라 사회 변화까지 유도하는 자주적 역량(empowerment)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 의생활 영역에서의 목표를 보면 “…(중략)자립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식생활, 의생활, 소비 생활의 능력을 길러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기른다(p19 표).”라고 서술한 부분과 “식생활, 의생활, 소비생활과 관련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생활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26 그림).”라고 서술한 부분은 자주적인 삶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생활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19 표).”라고 서술한 부분은 생활의 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지가

Table 8. Assumptions of objective

	교육과정 서술 내용	분류	
		전통적	비판적
2007 개정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p2:29-31).		○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p3:1-3).		○
	(교육과정 해설서 - 의생활 영역)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립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식생활, 의생활, 소비 생활의 능력을 길러 <u>자주적인 삶</u> 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기른다(p19 표).		○
	(교육과정 해설서 - 의생활 영역)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며,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관련 있는 다양한 생활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19 표).		○
	(교육과정 해설서 - 의생활 영역) 청소년기의 건강이나 가치관은 성인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식생활, 의생활, 소비생활과 관련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생활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26 그림).		○
	(의생활 영역 해설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에서 요구되고 있는 지식, 능력, <u>가치판단력</u> 등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p33 그림).		○
	(의생활 영역 해설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관련 있는 실제 체험을 통하여 생활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가족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u>삶, 친화경적인 삶,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u>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p35 그림).		○
2009 개정	‘가정생활’ 영역 학습의 지향점은 개인과 가족의 이해를 기초로 자립적이고 친화경적인 생활을 실천하며, 생애 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u>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pp5:30-6:2)</u> .		○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u>역량과 태도</u> 를 기른다(p6:23-25).		○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 <u>자신의 삶</u> 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u>역량과 태도</u> 를 기른다(p6:27-29).		○
	(의생활 영역)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시간 및 스트레스, 소비생활과 관련된 <u>자기 관리 능력</u> 을 기르며,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p9:9-11).	-	-
(의생활 영역) 건강가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u>녹색 가정 생활</u> 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 생활의 실천적 역량을 길러 <u>지속 가능한 사회적 성장</u> 에 기여할 수 있다(p9:12-14).		○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u>자립적인 삶</u> 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여 기술적 능력을 높여,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창조적인 기술의 세계를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p5:3-6).		○
	(의생활 영역)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u>노작활동과 체험,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u> 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u>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u> 을 기른다(p5:10-11).		○
	(의생활 영역)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의 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를 통해 자신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u>관계형성능력과 생활자립능력</u> 을 기른다(p5:12-13).		○

드러나지 않아 관점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2009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 영역의 학습 지향점은…(중략)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pp5:30-6:2).”라고 서술한 부분에서는 개인과 가족,

사회를 넘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p6:23-25).”라고 서술한 부분과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p6:27-29).”라고 서술한 내용은 교육의 목표가 가치판단과 자주적 역량을 형성하는 것으로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의생활 영역에서의 교육목표는 “녹색 가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생활의 실천적 역량을 길러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p9:12-14).”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교육목표를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 (중략) 청소년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시간 및 스트레스, 소비생활과 관련한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며 (p9:10)”라고 서술한 부분과 같이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목표가 전통적 관점에서 의미하는 기술적 관리인지 비판과학 관점에서 말하는 자립적인 관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

2015 개정 가정교과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p5:3-6)”라고 서술한 내용은 항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지식과 가치판단을 강조하였다.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목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를 이해하고 노력활동과 체험,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 능력을 기른다(p5:10-11).”라고 서술한 부분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고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의 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를 통해 자신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관계형성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기른다 (p5:12-13).”라고 서술한 부분은 주도적인 생활자립능력을 강조하였다.

전통적 관점으로 개발된 7차 가정교과교육과정의 교과목표와 의생활 영역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가. 일상 생활과 관련되는 일을 경험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습득한다.

나. 기술과 가정 생활을 관련되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진다.

다. 일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p2:11-17)

의복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의복의 구입, 제작, 수선,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상황과 개성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으며, 옷감의 특성에 따라 세탁과 보관을 바르게 할 수 있다(7차 교육과정 해설서 p196 그림).

위의 내용은 학습자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의 기초적 능력들을 습득하고 이와 관련된 의생활 기술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가정(assumption)하고 있어 비판과학 관점에서의 교육목표와 대조되었다.

이와 같이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가정교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을 기르고 가치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으로 가정(assumption)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주적 역량은 능력(competence)과는 달리 개인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기술적 행동과 의사소통적 행동, 비판적 행동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함께 추구되어야 할 전력이자 목표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여 교육목표에 가족의 세 행동 체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 4)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

<Table 4> 분석틀에 기초해,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교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교육내용과 내용별 성취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2007 개정 가정교과교육과정은 전통적 관점을 취하였고, 2009 개정과 2015 개정 가정교과교육과정은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7 개정 가정교과교육과정은 의복학의 소주제 중심의 기술과 방법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9 개정과 2015 개정 가정교과교육과정의 경우는 기술 과학적으로 분류된 의복학 내용을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2007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은 의복학 내용을 전수하는 것으로 구성된 전통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p5:15)와 “옷의 기능을 알고, 옷의 선택을 위한 계획과 구입 방법 등을 이해하며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한다(p6:11-12).”, “옷 만들기를 통해 옷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옷의 변형과 수선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p6:18-19).”라고 서술한 내용은 의복학의 소주제들로 구성되어 옷의 기능과 선택, 제작에 관한 전형적인 학문적 교과 영역 내용이었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의생활 욕구에 대한 의미나 가치판단 없이 물리적인 부분만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었다.

2009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은 대부분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전통적 관점에서 기

능과 지식을 강조하는 의복학의 내용 통해 특정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p14:21)”라고 서술된 부분은 ‘옷차림’이라는 의복학 내용을 다루어 “긍정적 자아정체감”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복 선택 및 구입방법을 이해하고,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하며...(p15:27-28)”라고 서술한 부분은 의복선택, 구입방법, 옷감 세탁과 보관 등의 의복학의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복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옷 고쳐 입기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p15:28-29).”에서도 의복 구성 원리, 옷 고쳐 입기와 재활용이라는 기술적 내용을 통해 친환경적 의생활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도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전통적 관점의 기

Table 9. Assumptions of subject matter(clothing & textiles section)

	교육과정 서술 내용	분류	
		전통적	비판적
2007 개정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p5:15).	○	
	옷의 기능을 알고, 옷의 선택을 위한 계획과 구입 방법 등을 이해하며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한다(p6:11-12).	○	
	옷 만들기를 통해 옷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옷의 변형과 수선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p6:18-19).	○	
2009 개정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p14:21-24)	○	○
	의복 선택 및 구입방법을 이해하고,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하며, 의복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옷 고쳐 입기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p15:27-29).	○	○
2015 개정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p18:표5-6).(해설-의복 디자인의 요소, 자아존중감이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신체보호 및 자기표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p19:6-8)	○	○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한다(p18:표7-8).	○	
	(학습요소) 의복 디자인 요소, 긍정적인 자기표현,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 의복 마련 계획, 의복의 형태와 종류의 선택(p18:5),	○	○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p20:표3-4).	○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p20:표5). (해설-의복 자원의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모색하여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의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이 때 사용하는 다양한 용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p21:11-12)	○	○
(학습요소) 의복의 세탁과 보관, 의복 재활용, 창의적·친환경적인 의생활(p21:3-4)	○	○	

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는 비판과학 관점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복 마련에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여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의 형태와 종류를 선택한다(p18:표7-8).”,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p20:표3-4).”라고 서술한 부분은 세탁, 보관 방법에 대한 전통적 관점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 한편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된 내용은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적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p18).”라고 서술한 부분으로, 의복 디자인의 요소, 개성 있는 옷차림이라는 기술적 내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표현’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전통적 관점으로 개발된 7차 교육과정의 의생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p5:15).  
옷의 기능을 알고, 옷의 선택을 위한 계획과 구입 방법 등을 이해하며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한다(p6:11-12).  
옷 만들기를 통해 옷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옷의 변형과 수선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p6:18-19).

위의 내용은 의생활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효율적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의복과 관련된 소주제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교육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기술적 내용을 다루는 전통적 관점이 주(主)를 이루고 있었고 가치를 추구한다는 내용의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 지식만으로는 가치를 추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통적 관점의 기술적 지식은 지식과 가치, 지식과 생활 경험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추구에 필요한 이성적 추론이나 윤리적인 접근,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다루기 어렵기 때문

이다. 가치를 추구하는 위해서는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판과학 관점의 교육내용 가정(assumption)에 따라 ‘가족의 일’로 접근하여 기술적 행동을 중시하는 내용 뿐 아니라 가치 추구에 필요한 이성적 추론, 윤리적 접근, 상호의존성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5) 교수방법의 가정(assumption)

<Table 4> 분석틀에 기초해, 2007 개정과 2009 개정 그리고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전체적으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2007 개정과 2009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은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였고,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경우는 전통적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7 개정과 2009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실천적 추론과 가족의 세 행동 체계를 강조하였고, 결과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경우는 실습 중심, 지식과 기능 습득과 같이 수동적 학습을 강조하는 내용의 전통적 관점이 있었고, 학생 중심과 실천적 추론을 강조하는 내용의 비판과학 관점이 혼재하였다.

2007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준, 관심, 필요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 지도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p18:19-20).”라고 서술하며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중시하는 학생 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있었다. “... (중략)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 기능, 가치 판단력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9:31).”라고 서술한 부분은 실천적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특히, 문제가 일어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행동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도한다(pp9:31-10:4).”는 실천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 등을 교수 방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서술하며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2009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 학습 수

준, 관심, 흥미 등을 고려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전개하며(p19:7-8)”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p19:8-9).”라고 서술한 부분은 학습 결과물 뿐 아니라 학습과정 중 필요한 지적, 사회적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 (중략) 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를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그리고 자기반성적 행동의 유기적인 통합 체계로 정의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p20:2-4).”라고 서술한 부분은 사실적 지식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

술적, 의사소통적, 자기반성적 행동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도 다루도록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천적 추론을 다루도록 서술하고 있었다(pp21:8-22:2).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p27:9-10)”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지식과 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 “자신이 가진 의복을 수선, 변형할 때는 바느질 방법, 패션 액세서리 기법 등을 익히고 실습중심 학습(p21:19)...”라고 서술한 부분은 의복 재활용 단원을 실습 중심의 전통적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 “학생들의 발달 단계, 학습 수준, 관심, 흥미 등을 고려하

Table 10. Assumptions of method in education

	교육과정 서술 내용	분류	
		전통적	비판적
2007 개정	학생들의 수준, 관심, 필요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 지도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p18:19-20).		○
	7-10학년 개인과 가정생활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단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 기능, 가치 판단력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문제가 일어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행동했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도한다(pp9:31-10:4).		○
2009 개정	학생들의 발달 단계, 학습 수준, 관심, 흥미 등을 고려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전개하며, 학생들이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p19:7-9).		○
	중학교 1~3학년군의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실천 교과로서의 특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과에서의 실천의 의미를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그리고 자기반성적 행동의 유기적인 통합 체계로 정의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p20:2-4).		○
	중학교 1~3학년군 ‘가정생활’ 영역에서 개인과 가정생활의 실천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행동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문제가 일어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식, 기능, 가치 판단력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습자가 대안 탐색의 과정을 거쳐 실천한 행동이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pp21:8-22:2).		○
	중학교 1~3학년군에서 가족·소비·의·식·주생활 관련 지식과 능력이 어떻게 실천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며, 나아가 어떻게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둔다(p22:24-26).		○
2015 개정	자신이 가진 의복을 수선, 변형할 때는 바느질 방법, 패션 액세서리 기법 등을 익히고 실습중심 학습, 모듈 학습 등을 통해 계획, 실행, 활용까지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실습 중 바느질 용구의 안전한 사용에 특히 유의하도록 지도한다(p21:19-21).	○	
	학생들의 발달 단계, 학습 수준, 관심, 흥미 등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 활동으로 전개하면서도 교과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p26:29-30).		○
	학습 소재와 자료는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27:9-10).	○	
	실과(기술·가정) 교수·학습 방법은 관련 내용에 따라 실천적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법, 문제 중심 수업, 실험·실습, 토의·토론법, 역할 놀이, 협동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활동이나 실제 사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p27:14~16)		○

여 학생 중심 활동으로 전개하면서도 교과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p26:29-30).”, “실과(기술·가정) 교수·학습 방법은 관련 내용에 따라 실천적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법, 문제 중심 수업...(p27:14)”이라고 서술한 부분에서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실천적 추론 학습을 강조하는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전통적 관점으로 개발된 7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 전 영역의 실습 소재나 재료를 생활 주변에서 찾음으로써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p10:7-8).

사. 교수·학습 활동은 전반에 걸쳐 노작을 중시하고, 가정 실습, 학교 행사, 지역 사회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산업체 견학, 자원 인사의 활용,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하여 흥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p10:9-11).

위의 내용을 볼 때 노작 실습을 중요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실천적 추론 과정을 중시하는 비판과학 관점과 대조되었다.

이와 같이 비판과학이 내재된 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실습, 지식과 기능 습득의 전통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로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主)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적 추론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교사 역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 6) 논의

가정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고자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

부터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가정교육과정의 이론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의 관점은 각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 가족, 사회,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비판과학 관점의 경향이 높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전통적 관점의 경향이 높았다.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 전통적 관점이 일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비판과학 관점의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구성요소 간에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족과 연결된 사회, 교육내용 간에 상호작용이 어려워 가족, 사회, 교육내용, 교수방법을 통한 교육 목표 달성이 어렵다 <Figure 1>.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이론은 특정 관점에서 구성요소들이 논리적 설정을 지니고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가족과 사회, 교과내용, 교수방법의 개념들이 맥을 같이 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들의 상호관계로부터 교육의 목표가 성취되기 때문이다(Brown, 1978)<Figure 2>.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에서는, 가족은 환경을 변화하고 창조하는 주체자로 가족의 세 행동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고 사회는 이런 가족에 의해 개선되고 창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교육내용은 이미 정해지고 선별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과 사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또한 기술적 행동과 기능 위주의 교과내용은 ‘실천적 추론’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참여’, ‘비판적 사고’ 등을 강조한 교수방법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들이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주적 역량과 가족의 행동체계 유지라는 교육 목표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에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의 관점들이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우선 의생활과 관련된 기술적 행동을 중시하는 소주제 중심의 내용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의생활 관련 항구적 문제를 다루고, 이를 가치목표에 기초하여 비판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해결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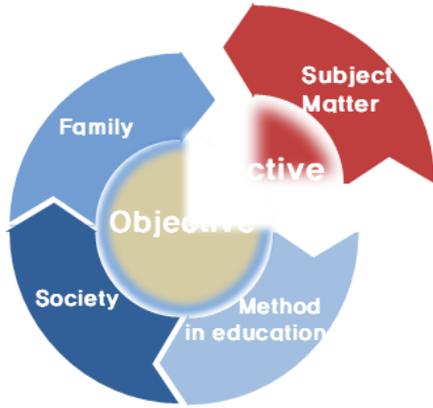


Figure 1. Rationale without internal consistency



Figure 2. Rationale with internal consistency

수 있도록 ‘가족의 일’이라는 광의의 개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의생활 관련 항구적 문제는 가족이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의생활 문제로서, 자동적이거나 습관적인 반응이 아닌 반성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행동과 관련 있는 문제이다 (Brown, 1978). 항구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광의의 개념은 전체 그림이나 청사진과 같은 것으로,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르칠 수 있으며 하위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도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의의 개념을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관점의 질문으로 탐색할 경우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Hauxwell & Schmit, 1999).

가정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은 ‘가족의 일’이다. ‘가족의 일’이라는 개념은 자녀 양육이나 사회화, 가족의 욕구 충족 등과 같은 가족의 기능 뿐 아니라 그 가운데 가족의 책임과 윤리적 판단, 그리고 가족 내 상호의존, 가족외부와의 상호의존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생활과 관련된 관심사들은 ‘가족의 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가족의 책임, 공동의 선에서 가치를 판단해야하는 윤리적 접근, 개인 뿐 아니라 가족원, 사회까지의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상호의존성까지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Wright, 1999). 세탁 방법, 바느질 방법, 코디 방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방법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일’로서의 의생활 관련 항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의

새 행동체계와 실천적 추론은 필수적이다.

가족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상황과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바라본다. 그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변화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의복 소품을 만들거나 세탁이 필요하면 그 방법들을 배운다(Motgomery, 2006; Kokoszka, 2015).

위와 같은 과정이 실천적 추론이며 의사소통적 행동, 비판적 행동 그리고 기술적 행동을 사용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개인과 가족은 삶이 변화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전통적 관점의 소주제 중심 수업은 주제에 대한 지식 정보가 축적되어 이를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의 의미, 맥락, 가치 추구 등의 깊이 있는 사고가 어렵고 다른 개념과 연결 짓는 것이 힘들게 된다. 결국 교육목표인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을 기르기가 어렵다.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으로서의 능력(competence)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과 가족이 변화의 주체로서 사회·경제·정치 체계 사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변화시켜 바람직한 조건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Brown & Paolucci, 1979).

이와 같이 교육내용이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될 때 나머지 가족, 사회, 교수방법 등의 교육과정 구성요소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내적 일관성을 지닌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 (assumption)이 비판과학 관점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가족에 대한 가정(assumption)과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 가족의 세 행동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비판과학 관점의 가정학 사명(Brown & Paolucci, 1979)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학의 사명은 개별 단위로서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관으로서 가족이 가정 생활에서의 일련의 행동 체계를 스스로 이루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는 가족이 개인의 자아 형성을 성숙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들을 비판하고 형성하는 데에 깨어 있는 협동적 참여를 하게 이끈다.

여기서 가족의 행동 체계는 가정교육 목표이자 전략이다. 즉, 가족은 기술적, 의사소통적 그리고 비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이를 스스로 이루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가족은 개인의 자아를 성숙시킬 수 있고,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들을 비판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앞에서 다뤘듯이 교육내용을 ‘가족의 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면 의생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족의 행동체계를 사용하게 되므로, 가족과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 가족의 기술적

행동 뿐 아니라 의사소통적 행동과 비판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에 대부분 “...지도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판과학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공동의 탐구자이자 협력자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습경험과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수방법에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가정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비판과학 관점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Figure 3>과 같이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전통적 관점에서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비판과학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족과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 가족의 행동체계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는 공동의 탐구자, 조력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추가하여 비판과학 관점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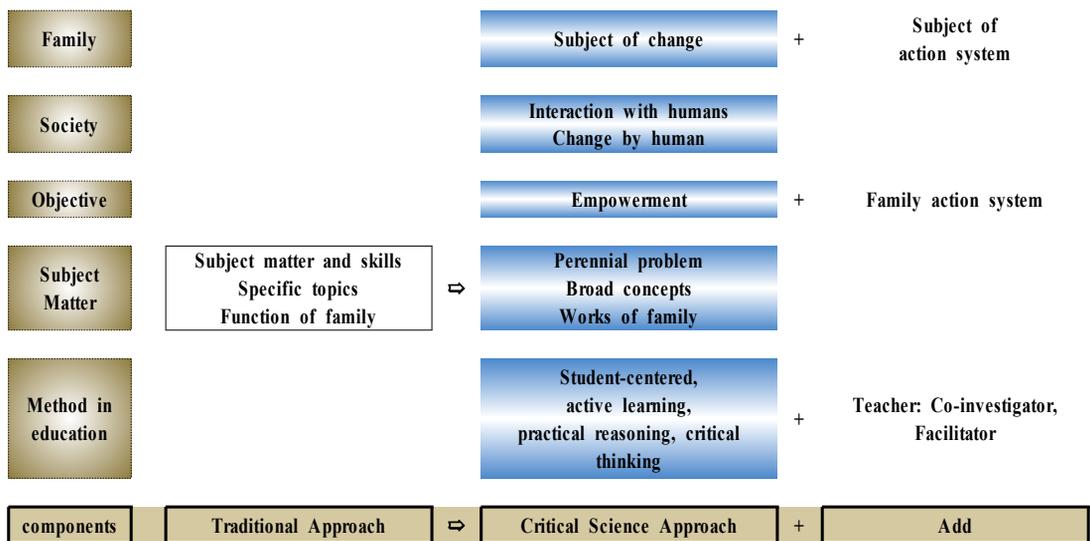


Figure 3. Changes in assumptions about curriculum components in the clothing & textiles area

2.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

위의 논의를 통해 가정과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에 근거해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가 내적 일관성을 지니도록 각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 및 보완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을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 기초하여 <Table 11>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가족의 일로서의 의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항구적 문제를 통해 실천적 추론과 가족의 일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학습하고, 두 번째 항구적 문제로는 ‘개인과 가족이 책임 있는 의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와 광의의 개념은 ‘책임’으로 정하였다. 교과내용으로 실천적 추론과 의생활 내용을 동시에 다루었다. 하위개념으로 ‘가족의 역할, 의복구매, 의복관리’를 선정하였으며, 내용요소는 개인적, 사회적 관점을 지니도록 하였고, 가족의 세 행동체계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포

함시켰다. 지적·사회적 기술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비판과학 관점으로 내적 일관성을 지닌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교과내용을 구성하는지 <Table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복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내용에서는 사회가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대한 가정(assumption)에 따라 학습자가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참여를 실천할 경우 더 나은 사회가 창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의복 선택 시 갈등 해결 방법’의 내용에서는 사회 규범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학생들이 직면한 의생활 문제로 조사하고 모듈별로 실천적 추론 단계를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사회는 개인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가정(assumption)을 기초로 한 내용이다. 둘째, ‘의복보관, 의복수선’ 내용에서는 교수방법이 문제해결과 실천적 추론을 강조하고 능동적 학생, 협력자의 교사를 강조하는 가정(assumption)에 의해 학생들이 제작한 재활용품과 기증한 의복으로 알뜰시장을 개최하거나 의복과 환경 문제에 관한 창작물 만들기과 같은 프

Table 11. Subject matter of clothing & textiles in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항구적 문제	광의의 개념	단원설명	하위 개념	내용요소	지적·사회적 기술
가족의 일로서의 의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실천적 추론, 가족의 일	의생활 관심사를 이해하게 되고 판단을 내릴 때 이성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역할	실천문제파악(가족의 일로서의 의생활 확인) 맥락 이해(역사적, 문화적 의복의 의미) 가치목표설정(주도적인 개인과 가족) 대안마련/평가(의생활 규범과 행동) 행동/파급효과(사회적 영향력, 문화화)	
개인과 가족이 책임 있는 의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책임	의복구매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인식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게 한다.	의복 구매	의복의 역할(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의복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욕구, 유행, 스타일, TPO, 이미지 등) 의복 선택 시 갈등 해결 방법(예산문제, 의견충돌문제, 사회규범문제, 욕구충돌문제, 사회문제 등의 해결 방법) 의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가격, 디자인, 내구성, 착용감, 유행 등 고려) 의복 획득 방법(기성복 구매 시 고려사항, 정보판단, 결제 방법, 장소선택 등)	관점차이 발견하기, 정보구별하기, 맥락해석하기, 협동적 대화하기,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가족이 의복 관리의 책임에 대해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다.	의복 관리	의복 재료의 종류(천연섬유, 인조섬유) 의복 관리 책임(가족 공유 방법 결정) 세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라벨 정보, 환경고려, 세탁기 및 세제 사용) 세탁 방법(세탁단계) 보관 방법(보관 장소, 기증방법) 의복 수선(버느질, 재봉틀 사용, 재활용)	

\*내용요소에 Kister(1993) Ohio's Work and Family Life Program을 참고하였음

Table 12. Subject matter according to curriculum components

하위 개념	내용	요소	교육내용
의복 구매	의복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의복 선택 시 갈등 해결 방법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복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li> <li>① 패스트 패션 찬성 vs 반대 토론하기(읽기자료: '나는 왜 패스트패션에 열광했는가')</li> <li>- 토론을 통해 패스트 패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디자인 도용, 환경오염, 건강에 해로운 화학품 사용, 노동(미성년). 착취, 옷의 내구성 저하로 인한 폐기물 대량 발생, 기부기금마련의 문제 등)</li> <li>-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하기</li> <li>예) 패스트 패션 폐해를 알리는 포스터 제작,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의복생산물(소포포함)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디자인 도용의 문제점 알리는 기사 만들기,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스티커 만들어 배부하기 등</li> <li>-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인식</li> <li>② 의복과 관련된 갈등(학생들이 직면한 문제 조사하기)</li> <li>- 체육복(운동복) 입고 등교, 짧은 교복 치마, 고가의 브랜드 옷 입고, 모조품 사기 등 의복 착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갈등 시나리오 제시 후 모둠별 실천적 추론을 통해 해결하기</li> <li>- 사회 규범에 의해 의복 착용에 영향을 받는 사례, 사회 규범이 변경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기</li> </ul>
의복 관리	의복 보관, 의복 수선	교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 실천적 추론, 능동적 학생, 협력자 교사 : 프로젝트 수업</li> <li>① 재활용품 프로젝트</li> <li>- 알뜰시장 마련 : 재활용할 수 있는 헌 의복이나 재료를 각 자 준비하여 팀별로 옷이나 의류제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포함하여 각자 기증한 헌 옷들을 판매하여 그 기금을 빈곤 아동이나 환경 단체에 기증한다. : 예시제사. 폐기 소방품으로 만든 가방, 방수천막으로 만든 가방, 버려지는 가죽으로 만든 지갑, 헌 옷의 캐릭터로 만든 와펜 등</li> <li>③ 의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작물 만들기</li> <li>- 만화, 노래, 포스터, UCC 등을 만든다</li> </ul>
	의복 관리 책임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세 행동체계(기술적, 의사소통적, 비판적 행동)</li> <li>② 의복 관리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관리 기술(세탁, 보관, 수선 등)을 알려주고, 그것을 했을 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해 보거나 가족원의 상황에 맞게 관리 책임을 나눈다. 그 후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가족의 기술적, 의사소통적, 비판적 행동). =&gt; 역할극이나 시나리오로 제안한다.</li> </ul>

로젝트 수업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은 실천적 추론의 행동 단계로서, 사회적 참여를 위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교사는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나 경험을 구성하는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셋째, '의복관리책임' 내용에서는 가족은 세 행동체계를 수행하는 주체라는 가정(assumption)에 따라 의복 관리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관리 기술(세탁, 보관, 수선 등)을 알려주고, 그것을 했을 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해 보거나 가족원의 상황에 맞게 관리 책임을 나누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역할극이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결국 교육내용은 가정과교육과정의 구성요소가 내재된 신념과 가치에 따라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상호작용한 결과, 교육내용은

'가족의 일'로서의 의생활을 인식하게 되고,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의생활 문제들을 실천적 추론을 통해 해결하고, 사회 참여로 까지 연결되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은 직면한 의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을 기를 수 있고 가족의 행동체계를 유지하여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한 결과, '가족의 일'로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의생활 문제를 접근하여 그들이 책임과 가치를 추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학습자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여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과교육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과정의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육과정의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취하고 있는 관점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교육과정에서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비판과학 관점의 경향이 높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전통적 관점의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가정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가 내적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을 비판과학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가족과 교육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비판과학 관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은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항구적인 의생활 문제를 ‘가족의 일’이라는 광의의 개념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가족의 세 행동체계와 실천적 추론을 사용하는 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정(assumption)과 교육목표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 가족의 세 행동체계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협력자, 조력자 그리고 공동의 탐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둘째,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판과학 관점의 의생활 교육내용의 대안적 예시를 제안하기 위해 비판과학 관점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항구적 문제, 광의의 개념(가족의 일로서의 의생활, 책임), 실천적 추론, 지적·사회적 기술 등의 내용

과 이와 관련된 하위개념과 의생활 내용 요소를 포함시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비판과학 관점으로 내적 일관성을 지닌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교육내용을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의생활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후속 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자들 간에 가정교육의 구성요소에 대한 신념과 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총론에 의존해오거나 관습적으로 해왔던 가정교육의 기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인, 조정,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논리로 가정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과정 개발자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정과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게도 요구된다. 신념과 가치에 근거하여 내적 일관성을 지닌 가정교육과정의 정립은 타 교과와는 다른 가정교과만의 고유성을 부여하여 교사를 포함한 학부모, 학생들에게까지 가정교육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내용체계를 개발하고, ‘가족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의생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실제 수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의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의 행동체계를 유지하고 자주적 역량(empowerment)을 갖춘 개인과 가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Bae, H-Y (2008). *Home economics curriculu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lothing life culture area based on the interpretive perspective on educational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Ban Y-J, Kim N-U, & Lee H-J, (201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 Lesson Plan on Clothing Lives to Raise youth's awareness of traditional clothing cultur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1-17.
-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Wisconsi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evaluation project (No. 33)*.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heon J-H & Ha J-S (2007). Adolescents' Clothing Culture in the Ubiquitous Era - Focused on Receptiveness about UFC(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 Fashion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2), 319-330.
- Cho E-Y (2003). Learning Requirement of Girl Students in High School for Clothing and Textile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4), 23-35.
- Cho H-J & Lee G-H (2004). The Analysis and the Effect of the Practical Problem Solving Method of the Clothings Chapter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in the 7th Curriculum. *Kyung Book University Institute of secondary education*, 52(2), 385-417
- Dewey, J. (1902).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Vol. 5).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 Dohner, R. E. (1986). *Rationale Development*. Laster, J. F., & Dohner, R. E. (Eds) *Vocational home economics curriculum—State of the field*. Peoria, IL: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Eo J-Y & Oh K-W (2009). Students' Experience and Preference on Student Activities in the Clothing & Textiles Section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1), 51-69.
-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oston, MA: Beacon Press.
- 한국경제신문 (2014). '바느질'에도 밀리는 SW교육
- Hauxwell, L., & Schmidt, B. (1999). *Developing Curriculum Using Broad Concepts*. Johnson, J., & Fedje, C.(Ed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eacher Education Yearbook* 19. Peoria, IL: Glencoe. NY: McGraw Hill Glenco
- Hur S (1995).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Curriculum Studi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5), 217-242.
- Johnson, J. & Fedje, C. (1999).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eacher Education Yearbook* 19. Peoria, IL: Glencoe. NY: McGraw Hill Glenco
- Ju I-S, Lee H-J, & Han Y-S (2006). The Recognition of Students on Appropriateness of Clothing & Textiles as Educational Contents in Practical Arts or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in the 7th Curriculum of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81-95.
- Ju S-E & Yoo T-M (2016). Development of Content Structure Focusing on Three Systems of Action for the 2009 Revised Current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2), 1-19.
- Kang M-H & Oh K-W (2006).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and Need for Clothing section of Home Economics in the Textboo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2), 63-77.
- Kim M-S & Lee H-J (2010).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for Raising Awareness of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Focused on the unit of 'the choice and maintenance of clothing' in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1), 51-65.
- Kim H-J (2013). A review on the Tyler Rationale : In the context of a 'teacher-proof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3), 1-26.
- Kister, J. (1993). *Resource Management Resource Guide*. A Resource for Teaching the Resource Management Core Course Area of Ohio's Work and Family Life Program.
- Kister, J. (1999). *Forming a Rationale: Considering Beliefs,*

- Meanings, and Context. Johnson, J. & Fedje, C.(Ed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eacher Education Yearbook* 19. Peoria, IL: Glencoe. NY: McGraw Hill Glenco.
- Kliebard, H. M. (1970). The Tyler rationale. *The School Review*, 78(2), 259-272.
- Kokoszka, J (2015). Reforming the Teaching of Textiles, Mary Leah de Zwart & Mary Gale Smith(Eds) *Proceedings of the Canadian Symposium XIII Issues and Directions for Home Economics/Family Studies/Human Ecology Education*. Winnipeg, Manitoba.
- Lee E-J & Shin H-W (2007). The Connection Analysis on the Areas of Clothing and Textiles in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the Science of Home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1), 1-14.
- Lee S-H (2007). Trends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Advanced Countries and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Revised Curriculum. *MEHRD · GOE. City, State, and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 curriculum key personnel training materials (Technology·Home Economics)*, 23-38.
- Lee S-H (2010). Future Tasks and Alternative Teaching-Learning Strategies to Make the Best Use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Secondary Schools based on the Newly Revised 2007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2), 133-153.
- Lee S-H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123-142.
- Lee S-H & Yoo T-M (2008).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al Program on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07-129.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99). *Home Economics·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Home Economics·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Home Economics·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2015). *Home Economics·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 Montgomery, B., & Davis, S. (2004). Building Strong Families and Communities: A Critical Science Rationale for FC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6(1), 52-56.
- Montgomery, B. (2006). Redefining sewing as an educational experience in middle and high school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8(1), 47.
- Montgomery, B. (2008). Curriculum development: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National Standards for Teache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159.
- Oh K-S, Lee K-Y, & Lee S-H, (2011). 2The contents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3), 91-119.
- Pak I-R & Lee E-H (2003). A Study on Research of Necessity and Practice of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3), 89-103.
- Park H-J (2005). *Model and Practice of Curriculum Development*. Seoul: Gyoyuggwahagsa.
- Park M-J (2008). Development of Empowerment Scale Instrument and Needs Assessment of Home Economics Teachers'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131-143.
- Park S-J (2007). Analysis of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of 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7th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37-60.
- Park S-B (2001). *Understanding curriculum : a chronological approach*. Seoul: Yangseowon.
- Plihal, J., Laird, M., & Rehm, M. (1999). The meaning of

- curriculum: Alternative perspectiv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eacher education: Yearbook*, 19, 2-22.
- Sung U-J (2001). *Developing the curriculum by adapting the practical problem solving instruction model on the clothes purchasing chapter in middle school's home econom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Yoo J-Y & Yoo T-M (2005). Development of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standards for clothing life area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2), 183-195.
- Yoo T-M, Chang H-K, Kim J-Y, Kim H-A, & Kim H-S, (2004). *Practical Problem Class for Widening I*. Shingansa
- Yoo T-M (2006). The nature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4), 193-206.
- Yoo T-M & Lee S-H (2009).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n In-service Program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Curriculum with Changing Curriculum Developmen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1), 1-19.
- Yoo T-M & Lee S-H (2014). A Critical Review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Based on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5(1), 23-37.
- Wright, P (1999). Work of the Family. Johnson, J., & Fedje, C.(Ed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eacher Education Yearbook 19*. Peoria, IL: Glencoe. NY: McGraw Hill Glenco.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과정에 내재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대안적 예시 제안을 통해 교과 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비판과학 관점이 내재된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과교육과정 5가지 구성요소 -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가정과교육과정까지의 의생활 영역에서 가정과교육과정 5가지 구성요소 중 가족, 사회, 교육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비판과학 관점을 취하였고,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전통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가 내적 일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assumption)은 ‘가족의 일’로서 의생활 문제를 다루도록 전환시켜야 하며, 가족과 교육목표, 교수방법에 대한 가정(assumption)에서는 가족행동체계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보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교육과정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에 기초한 의생활 교육내용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비판과학 관점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7월 11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9월 15일